

철학의 중심문제해결을 통하여 본 중세 우리 나라 유물론철학의 진보성(1)

박 문 성

중세 조선철학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제기된 철학의 중심문제와 그 해결에 있어서 유럽의 철학보다 매우 발전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중세기 구라파에서는 유물론이 철학조류로서 존재하지 못하였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유물론이 철학조류로서 매우 발전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중세기에 철학의 중심문제가 사람의 발전과 사회의 실천적요구로부터 여러가지로 제기되었으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 유물론적철학사상이 상승적으로 발전하였다.

중세 우리 나라에서는 철학의 중심문제가 크게 5단계에 걸쳐 제기되었다고 볼수 있다.

세나라시기(B.C.3세기초~A.D.10세기) 우리 나라에서는 《천(하늘)》과 령혼을 어떻게 리해하며 세계와 인간의 운명이 무엇에 의존되는가 하는것이 철학의 중심문제로 제기되었다.

고대시기 노예소유자계급에 의해 널리 류포된 《천》숭배사상과 령혼불멸설은 세나라시기에도 여전히 무시할수 없는 사상조류로 남아있었다.

《천》과 령혼을 어떻게 보겠는가 하는 문제는 자연과 사회현상, 인간의 운명문제를 무엇을 출발점으로 하여 해석하겠는가를 가르는 문제로서 이 시기 철학분야에서 세계의 존재와 운동발전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확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심적인 논의문제로 나서지 않을수 없었다.

이 시기 진보적인 사상가들은 이러한 시대적 및 철학적요구를 간파하고 고대시기부터 발생발전하여오던 기의 물질적성

격을 더욱 심화시키면서 세계는 초자연적인 《천신》이나 관념에 의하여 창조된다는 종교적, 관념론적견해들을 비판하였다.

이 시기 철학의 중심문제해결에서 이룩한 중요한 성과는 우선 기에 의한 세계의 물질적다양성이 강조된것이다.

진보적인 사상가들은 《혼돈한 기》에 의한 세계의 물질적통일성이 일정하게 강조된 고대시기 기에 대한 견해를 심화시켜 사람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사물현상들을 물질적인 기에 의하여 해석하였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백기》, 《적기》, 《운기》와 같이 기와 결합된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있다. 실례로 《백기가 하늘에 펼쳐졌다》, 《동쪽에 적기가 나타났다》, 《운기가 나오기 시작하여 산마루에 이르렀다》 등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백기》는 흰구름이나 안개, 연기, 《적기》는 붉은 노을, 붉은 섬광, 《운기》는 구름과 같은것을 의미하는 개념들이었다.(《삼국사기》권제 2, 6, 8, 16, 23, 《삼국유사》권제3)

이러한 자료들은 이 시기 물질적인 기에 의하여 사람과 구체적인 사물현상들을 설명하는데로 나아갔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유물론자들은 기를 구체적인 사물현상들의 형체를 구성하고있는 물질적실체라고 보았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기가 모이거나 흩어지는데 따라 각이한 사물현상으로 되는데 기가 모여 응축되면 사물을 이루고 흩어지면 구름이나 안개, 공기와 같은 기로 돌아간다. 사람도 역시 기로 이루어졌는데 사람의 육체는 물론 정신이나 기개, 담력도 기의 특수한것이며 사람이 앓거나 죽는것도 독이 있거나 죽음을 가져오는 기에 의한것이다.

사물현상을 이루고있는 기는 어두운 기와 밝은 기, 흰기와 붉은 기, 맑고 깨끗한 기와 불결한 기, 향기로운 기와 역한 기 등 여러가지 특성을 가지고있으며 이 기의 특성에 따라 사물현상들은 색깔과 모양, 기능상에서 차이를 가지게 된다.

이 시기 유물론자들은 기와 구체적인 사물현상들을 불가분리적인것으로 보면서 사물현상들은 곧 기이고 기는 사물현상들을 구성하고있는 물질적재료라고 간주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사물현상들의 다양성에 대한 유물론적해석으로서 세계의 물질성을 강조하는데서도 일보전진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 유물론자들은 아직 기의 물질적성격에 대한 뚜렷한 표상이 없었던데로부터 정신현상도 기로 이루어졌다고 간주한것(정기, 지기, 수기, 담기)이라든가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죽는 현상도 나쁜 기나 죽음의 기(사기, 독기)가 침습하는것으로 본것과 같은 제한성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의식수준이 미약하고 과학발전이 미숙한데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이 시기 기에 대한 견해는 당시 철학의 중심문제해결에서 세계를 초자연적인 인격신인 《천신》이나 《령혼》의 피조물로 보거나 세계의 물질성을 거부하는 종교신비적인 견해를 타파하는데서 이론적의의를 가지는것이였다.

이 시기 철학의 중심문제해결에서 이룩한 중요한 성과는 또한 사람이나 나라의 운명은 그 어떤 외적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자신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다는 무신론적인 견해가 확립된것이다.

이 시기 반동적지배계급은 저들의 착취적본성을 은폐하고 계급신분적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국가의 흥망성쇠나 삶과 죽음, 화와 복, 부귀와 빈천 등 인간의 운명이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하여 미리 규정되어있는 숙명적인것이라고 설교하였다.

그들은 국가나 개인의 운명은 숙명적인것이며 따라서 《신》에 대한 숭배와 기도, 제사 등을 통하여 《신》의 도움을 받아야 국가나 나라의 운명이 순조로워진다고 하였다. 또한 신비주의적인 숙명론을 류포시키기 위하여 요란한 제사를 비롯한 종교미신행사들을 자주 벌려놓고 신적존재의 신통력, 령험에 대한 허황한 거짓말을 꾸며내어 신적존재의 실재성을 인식시키려고 시도하였다.

이 시기 무신론자들은 숙명론을 반대하면서 인간의 운명문제를 현실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였다.

고구려의 진보적인 사상가들은 사람의 생활에서 당하게 되는 길흉화복은 그 어떤 《신》이나 《령혼》의 조화에 의한것이 아니라 사람자신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다고 인정하였다.

고구려의 고복장(고구려 차대왕때 우보벼슬을 지낸 관료, 차대왕에게 살해당함)은 사람의 재난과 복은 사람자신이 사물현상을 어떻게 대하고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그는 인간의 길흉화복을 숙명적인것으로 보거나 신비적인 힘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보는 종교관념론적견해를 부정하고 《일을 잘하지 못하면 좋은것도 변하여 나쁜것으로 되고 일을 잘하면 재난도 도리어 복으로 된다.》(《삼국사기》권제15, 고구려본기 제3)라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에 기초하여 고복장은 118년 2월에 지진이 일어나 많은 피해를 입은것과 관련하여 봉건통치배들이 《천신의 조화》라고 떠들고있을 때 지진이 일어났는데 《천신의 조화》를 운운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며 탄식을 해야 소용이 없다고 하면서 현실적인 대책을 세울것을 주장하였다.

고구려사람인 백고(태조대왕때 사람)도 《재앙과 복은 오는 문이 따로 있는것이

아니라 다만 사람이 그것을 불러오는 것이다. ... 욕심을 억제하여 ...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 부귀가 몸에서 떠나지 않고 재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삼국사기》권제15, 고구려본기 제3)라고 하였다.

이러한 무신론적견해는 신라사람들속에서도 제기하였는데 617년 신라진영에 큰 별찌가 떨어진것을 보고 왕이 좋지 못한 징조라고 불안해하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길흉이란 고정된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자신에게 달린것이다.》(《삼국사기》권제41, 렬전 제1)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세나라시기 우리 나라 철학에서는 《천(하늘)》과 령혼을 어떻게 리해하며 세계와 인간의 운명이 무엇에 의하여 결정되는가 하는것이 철학의 중심문제로 제기되었으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 유물론적인 철학사상과 무신론사상이 발전하였다.

중세 우리 나라 철학에서 중심문제는 12세기 말~13세기 전반기 새로운 양상을 띠고 제기되었다.

이 시기 우리 나라에서 철학의 중심문제로 나선것은 사람과 천지만물이 신비적인 요인에 의하여 목적의식적으로 창조되고 지배되는가 아니면 자기자체로 존재하고 변화발전하는가 하는것이였다.

이 문제는 세계의 시원, 본질과 관련되는 세계관적인 문제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신비적목적론과 유물론적견해가 갈라졌다.

신비적목적론은 세계가 《신》이나 조물주에 의하여 목적의식적으로 창조되고 지배된다고 하는 견해였다. 신비적목적론에 의하면 자연현상뿐아니라 인간의 운명과 사회현상도 사람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이나 조물주의 목적과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 시기 진보적인 사상가들은 《신》이나 조물주에 의한 세계의 창조와 지배를 주

장하는 반동적인 사상을 반대하면서 유물론적견해를 제기하였다. 그 대표자는 리규보, 리승인, 리승휴 등이였다.

리규보(호는 백운거사, 1168-1241)는 당시 철학의 중심문제해결에서 신비적목적론을 반대하고 세계의 본질에 대한 유물론적인 《원기론》을 제기하였다.

리규보는 하늘이 천지만물을 목적의식적으로 내고 지배한다는것을 부정하였다. 그는 《문조물》이라는 글에서 하늘이 그 어떤 의지도 창조능력도 없고 사람과 오곡상마를 비롯한 천지만물을 만들어낼수 없으며 더우기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에게 리익 또는 해가 되는것을 분별하여 처리할수 없다고 하였다.

리규보는 다양한 천지만물을 만들어내는 주재자라고 하는 조물주의 존재도 부정하였다. 그는 조물주의 말을 빌어 《내(조물주)가 만물을 만드느것을 네가 보았느냐. 만물은 스스로 발생하고 스스로 변화하는것이니 내가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알겠는가. 나는 나를 조물이라고 부르는것조차 또한 모른다.》라고 함으로써 조물주의 존재자체를 거부하였다. (《동국리상국후집》권제11, 문조물)

리규보는 우주자연의 모든 사물현상은 그 어떤 초자연적이며 신비적인 힘에 의하여 목적의식적으로 창조되고 지배되는것이 아니라 자기자체로 생성하고 변화하는 객관적실재라고 인정하였다. 그는 《사람과 만물이 생겨나는것은 혼돈상태에 있는 자연에서 정해지는것이니 하늘자체도 모르고 조물도 모른다.》고 하였으며 사람과 만물은 《스스로 발생하고 스스로 변화》할뿐이라고 하였다.(우와 같은 글)

이 시기 진보적인 사상가들은 스스로 발생하고 스스로 운동변화하는 천지만물의 근원을 《원기》로 보았다.

리규보는 《원기가 처음 갈라져 우로는 하늘이 되고 아래로는 땅이 되었으며 사

람은 그 가운데 있다. 이것을 3재라고 한다. 3재는 하나와 같다.》(《동국리상국후집》권제11, 문조물)라고 하였다.

리규보를 비롯한 이 시기 사상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기, 원기는 처음에 혼돈상태로 있다가 점차 하늘과 땅, 사람을 생성하고 천지만물을 이룬다. 하늘과 땅, 사람은 물질적인 기를 시원으로 하여 갈라져 나온것으로서 어느것이 다른것을 규제하는 관계가 아니라 다같은 동격의 존재이다.

그들에 의하면 원기로부터 천지만물이 생성하는것은 원기자체의 운동변화와 관련되며 원기가 운동변화하는것은 음기와 양기의 호상작용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리규보는 《자연의 리치를 놓고 말한다면 해와 달, 별, 산천과 언덕 같은것은 큰 물건들이지만 차고 비고 긍정되고 부정되고 막히고 통하는 변화를 면할수 없으니 이것은 음양의 법칙을 따르지 않을수 없기때문이다. 그러니 그밖의

사물들이야 더 말할것이 있겠는가.》(《동국리상국전집》권 제23, 통재기)라고 하였다.

리규보는 새와 짐승, 풀과 나무가 나고 변화하며 낮과 밤, 추위와 더위가 바뀌고 해와 달이 차고 기울어지는 리치와 조수가 드나드는 원인은 일반적으로 사물현상의 운동변화가 미미한데로부터 현저한데로 나가고 막히는것이 오래되어 궁극에 이르면 통하게 하는 음양법칙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동국리상국전집》권 제24, 천개동기)

이 시기 철학의 중심문제해결에서 제기된 진보적인 사상가들의 견해는 세계를 물질적인 원기와 천지만물자체에 의하여 설명하는 견해로서 세계와 인간사회가 《신》이나 초자연적인 정신적인 요인에 의하여 목적의식적으로 창조되고 지배된다고 보는 신비적인 견해를 이론적으로 비판극복하는데서 일정한 의의를 가지었다.